■ 지방선거 핫코너

안순일 "학생 적성 살릴 풍토 조성"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9일 "5년 연속 수능 전국 1위 등 으뜸 광주교육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살려낼 수 있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빛고을 교육신화를 이어가기 위해 체계적인 학력관리 시스템과 입학사정관제 대비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2011학년 수능부터 EBS 교육방송 활용의 빈도가 대폭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EBS 교육방송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장환 "교사초빙제, 모든 학교 확대"

김장환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9일 "교사초빙제를 모든 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교사초빙제가 전문계고와 거점학교, 특수목적고 등에 한정돼 일반 고교에서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교사초빙제 배치율을 전체 교원 정원의 20%에서 40%까지 끌어올리고, 도내 전체 학교에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다만 "모든 학교에 교사초빙권을 부여할 경우 우수교사가 특정학교로 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혁 "광주시의원 무소속 출마"

김상혁 전 북구의회 의원이 광주시의원(북구 제1선거구)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북구의회 1·2·3대 의원을 지낸 그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여 년간 몸담았던 민주당을 탈당하고 오직 주민을 섬기겠다는 일념으로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구의회 3선의 의정경험과 검증된 능력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참 일꾼의 자세로 주민을 섬기는 정치를 펼칠 것"이라며 "지역 갈등과 반복을 치유하는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전동평 "영암군수 경선 결과 승복"

민주당 영암군수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김원배 예비후보가 신청했던 재심이 기각됐다.

민주당 재심위원회는 "경선후보자 압축과정에서 탈락한 김원배 예비후보의 재심을 최근 기각했다"면서 "여론조사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된 김일태 예비후보에게 뒤졌던 전동평 예비후보는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해참총장 "고통 준 세력 더 큰 대가 치를 것"

■천안함 46용사 영결식 이모저모

"당신들이 남긴 살신보국의 참군인 정신은 모든 국민이 자자손손 이어 누릴 자유와 번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29일 오전 10시 평택 2함대사령부 안보공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과 유가족 등 2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장으로 엄수된 영결식은 유족들의 오열 속에 진행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영결식이 시작되기 전 46용사의 유가족 석에 앉아 있는 유족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애도를 표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고인에 대한 묵념으로 영결식이 시작되자 유족들은 눌러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고인에 대한 경례 순서에서 이 대통령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인들의 영정을 향해 거수경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고 이창기 준위를 시작으로 46용사 한 명 한 명에게 일일이 화랑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장의위원장인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장병의 명복을 비는 조사(弔辭)를 낭독, 식장을 숙연케 만들었다.

김 총장은 "그대 다 피지도 못하고 물 젖은 몽우리로 산화하여 구릿빛 육체는 차디찬 바다에 던져졌지만 당신들의 숭고한 애국심과 희생정신은 우리들의 가슴에 생생히 살아 영원할 것입니다"라며 넋을 기렸다. 김 총장은 "3월 36일 백령도에서의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용서할 수 없으며 용서해서도, 잊어서도 안 됩니다. 큰 고통을 준 세력들이 누구든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찾아내어 더 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라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천안함 생존자 갑판부사관 김현래 중사가 전우를 먼저 떠나보내는 애끊는 심정을 담은 추도사를 올리자 유족들은 46 용사를 떠나 보내는 현실을 받아들인 듯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고(故) '천안함 46勇士' 영결식이 29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내 안보공원에서 '해군장'으로 엄숙히 거행됐다. 독도함 수병들이 지나가는 운구행렬을 향해 거수경례로 조의를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존 장병 46명, 46용사 영정 들고 마지막길 함께 해
이대통령 일일이 영정에 훈장 추서…유족들 눈물바다

김 중사는 추도사를 통해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충격과 혼란으로 우리는 암흑천지의 바다에 떨어졌다"고 당시의 끔찍했던 상황을 회고했다. 그는 "그대들을 천안함 속에 남겨둬서 미안하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김 중사는 이어 "여러분과 우리를 갈라놓은 슬픔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전우들에게 더 큰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바다를 굽어 살피시어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라며 추도사의 끝을 맺었다.

유족들은 해군군악대 중창단이 '님이시여' '떠나가는 배'를 합창하는 가운데 마지막 길을 떠나는 아들, 남편, 오빠의 영정 앞에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올려놓았다. 영정을 쓰다듬으며 아들을, 남편을, 오빠를 외치며 오열하는 유족들도 있었다.

식장은 유족들의 흐느낌과 비통해 하는 장병의 눈물로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다. 헌화를 하던 일부 유족은 "이렇게는 보낼 수 없다"며 울부짖다 쓰러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유가족 대표 등의 헌화 및 분향과 종교의식에 이어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9발의 조총이 발사되고 평택군항에 정박한 모든 함정에서는 10초간 애도의 기적을 울렸다.

이어 해군 군악대 중창단이 '바다로 가자'와 '천안함가'를 합창하는 가운데 영현 운구가 시작됐다.

호위병 2명의 선도로 대형 태극기와 해군기를 앞세운 운구행렬은 길 양편에 도열한 해군 의장대 208명이 호위를 받으며 용사들의 영현과 영정과 위패, 훈장, 운구함 순으로 식장을 빠져나갔다.

천안함 생존장병 46명은 46 용사의 영정을 직접 들고 전우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영결식장을 나와 군항 부두로 이동한 46 용사 영현은 전우를 떠나 보내는 기적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정박 중인 모든 함정 승조원들이 함정의 뱃전에 도열해 바치는 마지막 '대함경례'를 받았다. 군함에서는 해군 정모와 정복을 상징하는 흰색과 검은색 풍선 3천 개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영결식이 1시간여 동안 거행된 후 운구행렬은 9~12대의 차량으로 1개 그룹을 편성해 총 11개 그룹이 시차를 두고 대전현충원으로 향했다. /연합뉴스

스페인도 신용등급 1단계 강등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지 하루 만에 스페인의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돼 세계 금융시장에 이틀째 충격파가 이어졌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S&P)는 지난 28일(현지시각) 스페인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1단계 강등했다고 밝혔다.

S&P는 또 스페인에 대한 전망 등급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이는 스페인의 재정 위기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신용등급이 추가로 강등될 수 있다는 뜻이다.

S&P는 이날 성명을 통해 "스페인이 장기간에 걸쳐 경기성장 둔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는 스페인의 재정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항속 35.4노트 어뢰에 천안함 침몰"

숭실대 연구진 "200kg급 중어뢰 함체 2.3m 거리서 폭발"

천안함이 어뢰를 맞아 침몰했다면 해당 어뢰의 폭발 직전 항속이 시속 35.4노트(65.7㎞)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연구진은 29일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공개한 천안함 폭발 당시의 지진파형을 0.01초의 분해능(分解能. 떨어져 있는 두 물체를 서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분석한 결과 폭발체의 속도가 시속 35.4노트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배명진 교수는 "폭발로 인한 초기파형의 주파수는 18.2Hz이며, 이 파형은 폭발 후 0.055초 만에 에너지가 5.28분의 1로 감소했는데 이는 폭발지점이 함체에서 2.3m 거리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0.055초란 짧은 시간 내에는 폭발 에너지의 전달 속도와 어뢰의 항속이 거의 일치하게 된다"며 "따라서 천안함을 피격한 어뢰의 속도는 시속 65.7㎞(35.4노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중국이 개발한 200kg급 중어뢰인 Yu-3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이 배 교수의 설명이다.

Yu-3는 길이 7.8m, 지름 533㎜, 탄두 중량 205kg, 항속 35노트, 사거리 13㎞의 음향유도 어뢰다.

배 교수는 "버블제트 어뢰에 동반되는 전조현상이 없었던 점과 충돌 직전 폭발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천안함 공격에는 일반 유도어뢰가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YU-3가 현재로서는 이런 분석에 가장 부합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